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확대('25년 1,004건 → '26년 1,200건)
- 기획조사 활성화로 선제적 불법제품 적발·차단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①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②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25년 1,004건 → '26년 1,200건), ③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

'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 등으로 사고·화재가 빈번하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이며,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 * (선정기준) ① 최근 5년간 화재 증가 상위 5개 품목(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등)
② '25년 3건 이상 사고 조사한 6개 품목(전지, 전동킥보드 등)
③ '25년 리콜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등)
④ '25년 불법제품 적발 상위 10개 품목(유모차, 학용품 등)

아울러, 리콜제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

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하여 재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둘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 유통제품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26.6.3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 ('25년 해외직구 안전성조사)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3.2%로 국내 유통제품의 부적합률 5.1%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수준

** (주요 법 개정 내용) 해외직구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해제품 정보 삭제 권고 및 그 사실의 대외공표, 관세청장에게 부적합 제품의 반송폐기 요청 등

셋째,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고 중심 불법제품 단속·조사에서 벗어나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하여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업체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형기 (043-870-5420)
		담당자	연구관	박순영 (043-870-5427)



1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 안전성 조사 추진

□ 안전성조사 방향

- 국내 제조·유통제품은 4,500여개 제품을 시중에서 구매·조사
 - 화재·사고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여 집중 조사
- 취약계층인 어린이제품의 조사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고,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정도 유지하여 온라인 시장 감시 강화
 - * 어린이제품 2,300개, 전기용품 1,400개, 생활용품 800개

□ 국내 유통제품 조사 품목

- (중점관리품목)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여 집중 조사
 - * (선정기준) ① '25년 리콜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어린이용 자전거, 완구 등)
 - ② 최근 5년간 화재 증가 상위 5개 품목(플러그 및 콘센트, LED조명 등)
 - ③ '25년 불법제품 적발 상위 10개 품목(유모차, 학용품 등)
 - ④ '25년 3건 이상 사고 조사한 6개 품목(전지, 직류전원장치 등)

61개 중점관리품목

- **전기용품(23개 품목)** : 전지,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냉방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절연전선, 전기마사지기, 전기다리미, 온열시트 등
- **생활용품(20개 품목)** : 전동킥보드, 눈마사지기, 속눈썹 열 성형기, 승차용 안전모, 계단식 소형 사다리, 휴대용 레이저용품, 부력보조복, 실내용 바닥재 등
- **어린이용품(18개 품목)** : 완구, 학용품,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침대, 유모차,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가구 등

- (그 외 조사품목) 지난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품목,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이력이 없는 품목 등

그 외 조사 품목(예시)	
■ 전기용품	: 누전차단기, 전기거치식그릴, 전기스팀쿠커, 파라핀용해기, 전기분무기, 전기원형톱, 전기잔디깎이, 전자식 스위치, 진공청소기, 스팀청소기, 전기토스터 등
■ 생활용품	: 소형 트럭용 타이어, LED 마스크, 쇼핑카트, 도배용 사다리, 원예용 사다리, 공기주입물놀이기구, 청소년용 비비탄 총, 망간 건전지, 디지털도어록 등
■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보행기,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물안경 등

□ 조사 일정

- 유통 시기,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5차례 정기조사를 통해 4,500개 제품 조사
-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제품안전 이슈 발생 시 정기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하되, 신속한 조사 등 필요시 수시 조사 추진

< '26년 정기 안전성 조사(안) >

분야	1차	2차	3차	4차	5차	합계
어린이제품	500	200	600	500	500	2,300
전기용품	400	150	300	250	300	1,400
생활용품	200	150	150	150	150	800
계	1,100	500	1,050	900	950	4,500개
조사시기	12월~2월	1월~5월	3월~7월	6월~10월	8월~12월	
조사제품	봄·신학기 제품	구매대행 제품	여름용품	가을용품 중점관리	겨울용품	

□ 행정처분

-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
- 안전성조사 과정에서 KC미인증, KC허위표시 등 다른 위법사항 적발 시 예외 없이 경찰고발·과태료 부과(지자체) 등 병행 조치

2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확대

-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24(448개) → '25(1,004개) → '26년(1,200여개))

* '25년 해외직구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3.2%로 국내 유통제품(5.1%) 대비 높은 수준

- 유통시기(신학기, 계절용품 등), 판매량,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3차에 걸쳐 안전성 조사 추진

< '26년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안) >

구분	1차	2차	3차	합계
조사 제품	봄·나들이 용품	가을·여행 용품	겨울용품	1,200개
조사 시기	2월~4월	7월~9월	9~12월	
계	400	400	400개	

-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가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페이지 삭제 요청 및 대외 공개로 소비자 구매 차단

*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보 게시

-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재판매 방지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 및 판매 차단 조치

□ 해외직구 관련 법령 정비

-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26.6월 시행)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신속 정비*

* 규제대상 범위(매출액, 이용자 수 등), 안전성조사/판매차단조치 세부절차 등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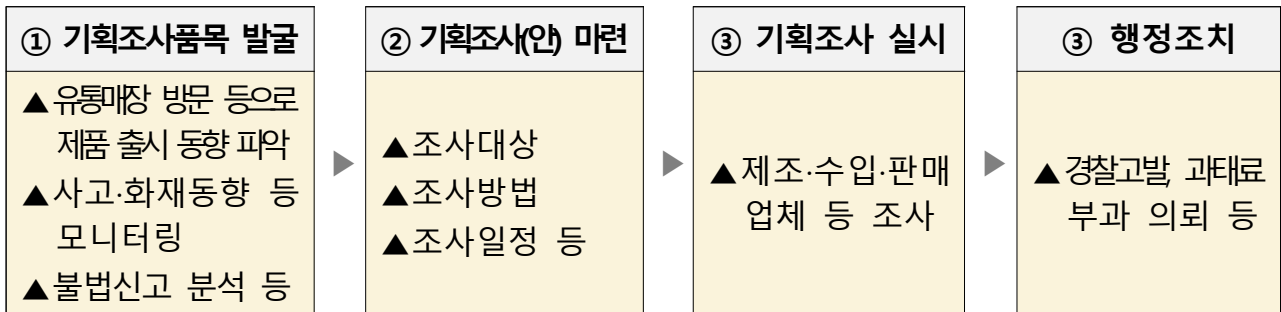
3

기획조사 활성화 등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 선제적 기획조사 추진

- 신고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제품 확산 초기에 선제적 기획조사로 위해제품의 확산 방지
 -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 품목 업계 전반에 걸쳐 조사하여 위해제품 유통 확산 방지

< 선제적 기획조사 절차(안) >



□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확대 ('25년 35회 → '26년 42회)

- 지자체·경찰청·교육청·조달품질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확대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

< 합동단속 계획 >

기관명	점검 시기	주요 내용	점검 횟수	
			'25년 실적	'26년 계획
지자체	수시	전자,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품목	25	28
경찰청	수시	전자,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품목	4	6
교육청	수시	교구, 완구, 학용품 등	3	5
조달품질원	하반기	어린이제품 등 조달물자	1	1
정부 합동단속	상·하반기	초등학교 주변 매장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	2
계			35	42

□ 소비자단체, 온라인 쇼핑몰 등 민간과 협력 강화

-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 안전감시원의 모니터링 범위를 대형 플랫폼·매장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新유통 채널까지 확대*

* 신규 모니터링 대상 : (온라인) 교구 전문몰, (오프라인) 박람회, 팝업스토어 등

-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협의체 참여 범위를 전문몰까지 확대*하고, 위해제품 정보 상시 공유, 판매 차단 등 협력

* ('25) 20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 → ('26) 전문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 등으로 확대

4 리콜사업자 관리 및 리콜제품 정보제공 강화

□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 리콜제품 회수 저조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 등 리콜이행점검 강화
 - 리콜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리콜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리콜제품 회수 저조사업자는 최대 6회에 걸쳐 리콜이행점검
-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리콜제품 재유통 여부 상시 모니터링 및 적발 사업자에 대한 경찰고발 조치 등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 리콜제품 유통 확인 시 유통 사업자 및 판매중개업자에 판매차단 요청 및 리콜 사업자 대상 리콜이행점검 추가 실시

□ 리콜제품 정보 제공 강화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리콜 정보 게시토록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 **현행 리콜 정보 게시 지자체 홈페이지 및 확대 추진 (안)** >

	현행 홈페이지 게시 수행 지자체	전국 확대 추진(안)
광역 단체	· 경상북도청, 전북특별자치도청	· 우선 추진 : 서울, 경기 · 후속 추진 :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전남, 제주
기초 단체	· (전북) 남원시청, 익산시청, 임실군청, 장수군청, 진안군청	· 상위 시·도청과 연계하여 알림·게시 추진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관할 교육 기관 및 학부모에 리콜 알림을 위한 협조 체계 확대

* ('25) 5개 시·도교육청이 리콜 알림·홍보 → ('26) 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 온라인 쇼핑몰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여 리콜제품 구매자에 대한 리콜 정보 직접 통보

- 이를 위해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매뉴얼 정비('26.상반기)

□ **중소매장으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 확산**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매장에 대한 일부 설치비 지원 등 보급 확산

- 기업 전문 복지몰, 지역별 중소 유통체인, 개별 마트 등 통합판매 관리 시스템 업체를 통해 일괄 확산 추진

* 지원예산: ('25년 실적) 총 87백만원의 예산으로 952개 매장 도입 지원
('26년 계획) 총 138백만원으로 1,500여개 매장 지원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한 유통업체 도입 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붙임1**국내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세부일정(안)**

※ 차수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되, 구매상황·여건 고려 품목 조정

1 봄 · 신학기용품 (정기 1회, 12월~2월)

구분	조사대상품목(안)
전기용품	▶ 전기토스터, 전기프라이팬, 모발건조기, 전기머리인두, 모발말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달걀조리기, 우유 가열기, 요구르트제조기, 의류관리기, 전기마사지기, 가습기, 직류 전원장치, 문서세단기, 복사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전기마사지기 등
생활용품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롤러스케이트, 승차용안전모, 속눈썹 열성형기, 가속눈썹, 킥보드 등
어린이제품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 침대,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완구, 유모차 등

2 구매대행 제품 (정기 2회, 1월~5월)

구분	조사대상품목(안)
전기용품	▶ 플러그 및 콘센트, 와플기, 전기토스터, 달걀조리기, 전기주전자, 전기다리미, 가습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전지, 직류전원장치, LED 등기구, 진공청소기, 스팀다리미 등
생활용품	▶ 스케이트보드, 승차용 안전모, 가정용 미용기기, 휴대용 레이저용품, 마스크 등
어린이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기타어린이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3 여름용품 (정기 3회, 3월~7월)

구분	조사대상품목(안)
전기용품	▶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와플기, 전기토스터, 달걀조리기, 전기주전자, 전기다리미, 가습기, 전기차충전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전지, 직류전원장치, 가정용 전동재봉기, 필름접착기, 진공청소기, 스팀다리미 등
생활용품	▶ 물놀이기구, 스포츠용 구명복, 건전지,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창문 블라인드, 속눈썹 열 성형기 등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물안경 등

④ 중점관리품목 (정기 4회, 6월~10월)

※ 61개 중점관리품목을 중점 조사

구분	조사대상품목(안)
전기용품	▶ 가정용 소형변압기, 플러그 및 콘센트, 냉방기, 절연전선(공칭단면적 95mm ² 이하), LED등기구, 전지, 전기마사지기, 전기다리미,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온열시트, 전기소독기, 케이블릴,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기요 등
생활용품	▶ 전동킥보드,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눈마사지기,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 속눈썹 열 성형기, 승차용 안전모, 계단식 소형 사다리, 킥보드, 휴대용 레이저용품, 산악용자전거, 부력 보조복, 휴대용 예초기의 날, 실내용 바닥재,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쌍커풀용 테이프, 전기자전거, 온열팩 등
어린이제품	▶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침대, 유모차,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

⑤ 겨울용품 (정기 5회, 8월~12월)

구분	조사대상품목(안)
전기용품	▶ 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온수매트, 수도동결방지, 가습기, 공기청정기, 전기보온기, 전기온장고, 발욕조, 전지, 온열시트 등
생활용품	▶ 스노보드, 스키용구,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기름난로, 마스크 등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온열팩,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완구,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등

□ **중점관리품목 현황(61개 품목)**

- ※ (선정기준) ① '25년 리콜비율이 평균 이상인 43개 품목(어린이용 자전거, 완구 등)
 ② 최근 5년간 화재 증가 상위 5개 품목(플러그 및 콘센트, LED조명 등)
 ③ '25년 불법제품 적발 상위 10개 품목(유모차, 학용품 등)
 ④ '25년 3건 이상 사고 조사한 6개 품목(전지, 직류전원장치 등)

구분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중점관리 품목 (61)	가정용 소형변압기	전동킥보드	어린이 놀이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냉방기	눈마사지기	어린이용 자전거
	절연전선(공칭단면적 95mm ² 이하)(화재)	가구(높이 762mm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	어린이용 킥보드
	LED등기구	속눈썹 열 성형기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전지	승차용 안전모	유아용 삼륜차
	전기마사지기	계단식 소형 사다리	유아용 침대
	전기다리미	킥보드	유모차
	전기장판	휴대용 레이저용품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전기요	산악용자전거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직류전원장치	부력 보조복	어린이용 가구
	전기방석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아동용 섬유제품
	전기방석	실내용 바닥재	어린이용 장신구
	전기찜질기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어린이용 가죽제품
	온열시트	쌍커풀용 테이프	완구
	전기소독기	전기자전거	유아용 섬유제품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온열팩	학용품
	케이블릴	운동용슬라이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성인용비비탄총	
	전기헬스기구	스텝퍼	
전기충전기			
전격살충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계	23개	20개	18개